

## 뒷간과 화장실 미학

중국에서는 변소를 칙소라고 부르고 공중변소를 공칙 또는 공공칙소라 한다. 그 외에 자주 쓰이는 명칭으로 염세소, 세수간이라는 것이 있으며 정방이라고 부르는 곳도 있다. 중국에서는 남녀의 변소가 반드시 구분되어 있다.



글. 이상정  
/무림교역대표·한화협이사

### ■ 돼지 변소

중국 고대의 변소를 가리키는 한자로서 청, 혼, 또는 설은이라는 말이 있다. 청은 물이란 뜻으로 고대에 수세식 변소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현재 남아 있는 유물은 없다. 혼은 돼지가 우리에게 갖혀 있는 글자의 모양처럼 돼지 변소를 뜻한다. 이 변소는 보통 집 들의 한 구석에 지붕을 이은 우리를 만들고 그 속의 흙을 약 1미터 내지 1.5미터 정도 파내 그 속에 돼지를 기른다. 돼지 우리와 인접한 한쪽 구석에는 변소가 있어서 대소변이 비스듬히 돼지 우리 속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돼지는 인분을 먹고 자라게 된다. 이와 같은 돼지 변소는 오늘날까지 중국 시골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고대에 인분을 가축을 이용해 처리하던 방법 중 한 가지가 지금까지 전해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람이 변소에 가까이 가면 돼지는 소리를 지르며 다가온다. 만약 용변이 늦으면 코로 사람의 엉덩이를 문지르는 일도 있다고 한다. 돼지는 따뜻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인분은 즐겨 먹지만 식어지고 굳어진 것은 잘 먹지 않는다고 한다.

중국의 돼지 변소는 이미 전한 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낙양에서 지하에 돼지 변소의 축소형 토기와 돼지 변소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굴된 적이 있다. 사람들이 돼지 변소를 고안해낸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모두 아는 것처럼 옛날 사람들은 항상 맹수의 위협 속에 시달리며 살아왔

다. 그 가운데서도 독사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존재였다. 사람들은 독사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가지 기지를 발휘했다. 사람들은 우선 집을 높게 지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돼지를 키웠다. 뱀이 돼지에게 꼼짝하지 못하는 천적이라는 것을 알아내고 이를 이용한 것이다. 한자의 [家]자를 갖머리 아래에 돼지 [豕]자를 넣어 상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한다. 돼지 변소에 관한 무서운 이야기도 하나 전해져 내려온다. 한(漢)나라의 유방이 황제로 있었을 때였다. 유방의 황후였던 여태후는 유방의 애첩인 척부인을 시기하여 잡아 두 눈을 빼고 양 귀와 팔다리를 잘라 돼지 변소에 가두고 인분을 먹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돼지 변소에 갖힌 척부인을 두고 '잘 자란 인돈'이라고 불렀다. 사랑을 빼앗긴 여자의 미움과 한이란 이토록 무서운 것인지 소름이 끼치는 얘기가 이닐 수 없다. 이와 같은 돼지 변소는 필리핀 등 동남아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일본의 오키나와와 한국의 제주도에도 그 유적이 남아있다.

### ■ 수도장으로 사용된 변소

중국 고대에 변소를 가리키는 말 중에 '설은'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말은 전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서정, 등사란 말 등이 있다. 이는 고대 중국 불교의 선종에서 스님들이 그들 승방의 동쪽에 있는 변소를 동사, 서쪽에 있는 변소를 서정, 남쪽에 있는 것을 등사, 북쪽에 있는 설은이라 한 데서 유래한다.

중국의 절강성 양파부의 서북에 지금도 설보사라는 절이 있다. 이 절은 진대에 창건되어 송대에는 설보산 자성사라 불렸던 매우 크고 유명한 절이다. 명승들이 많이 났으며 송의 순화 연간에는 '응몽명산'이란 네 자의 칙액을 하사 받았다. 설보사가 배출한 명승 가운데 설보명각선사라는 승이 있다. 설보명각선사가 젊었던 시절 절강성의 임안부에 있는 설은사에서 수양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수련승들이 말아야 하는 일들 중에 변소 청소가 있었다. 당연히 이 일은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더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누군가는 분명히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그일을 설보명각선사가 도맡아서 했다. 그것을 두고 설보사의 중들은 설은사의 소송, 변소의 화장이란 의미의 은어로 변소를 '설은'이라 칭하게 되었다고 한다. 설은사의 변소에는 청정을 게을리하지 않고 눈처럼 희고 깨끗이 닦으라는 뜻의 '설은'이라는 액자가 걸려 있었다고 한다.

## ■ 삼상사

송나라의 대문호 구야수는 그가 쓴 <귀전록>에서 자기가 평생 쓴 글의 대부분이 삼상에서 이루어졌다고 했다. 이 삼상이란 말 위, 베개 위 그리고 칩간 위를 뜻한다. 이를 구야수의 삼상사라고 한다.

## ■ 화장실 전쟁

일반적으로 중일전쟁의 발단을 노구교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일본군과 중국군 사이의 하찮은 실랑이 끝에 일어난 것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한 신병의 화장실 문제 때문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어느 날 밤 노구교 부근에서 한 일본군 부대가 야간훈련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훈련이 끝나갈

무렵쯤 중국군 주둔지로부터 몇발의 총알이 날아왔다. 일본군은 즉시 전열을 정비하고 전투 준비에 돌입했다. 병사들은 자신의 위치로 돌아갔으며 지휘관들은 부하들의 위치를 꼼꼼하게 확인했다. 그러는 도중 문제가 하나 생겼다. 갓 들어온 신병 하나가 안 보이는 것이었다. 일본군 지휘관은 신병이 중국군의 포로가 된 것이라고 판단했고 즉각 상부에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일본군 사령관은 행방불명된 병사를 찾기 위해 중국군 주둔지에 일본군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중국군은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 중국군과 일본군이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 동안 여허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중국군의 포로가 되어 있을 거라고 믿어졌던 신병이 얼마 후 부대로 복귀한 것이다. 이유인즉슨 어이없게도 '볼일이 급해서' 잠시 변을 보고 왔다는 것. 물론 지휘관은 즉각 상부로 보고를 올렸다. 그러나 일본군 사령관은 사건의 모든 전말을 은폐시키고 오히려 중국군 주둔지 내에 들어가게 해줄 것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했다. 사령관은 중국을 침략할 좋은 구실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중국군 역시 일본의 이런 속셈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더욱 완강하게 일본군의 요구를 거절했다. 결국 이것이 전쟁의 계기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다.

중일전쟁에서 기세를 올린 일본군은 제 2차 세계대전까지 참전하였는데 전쟁 초기 일본군의 기세는 대단해서 세계 각지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하지만 일본군은 점령지에서 온갖 전염병으로 고생을 해야만 했다. 장기간 주둔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소를 설치하지 않았으니 전염병을 피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그들의 주둔지는 점령 직후부터 오물구덩이가 되어버리고는 했다. 주둔지 점령 후 화장실 설치는 이후 현대전에서 필수적인 수칙이 되었다.

## ■ 반상화하는 공동변소

중국의 화장실이라면 누구나 출입문이 없는 화장실을 연상하게 된다. 북경이나 상해등 대도시 신축 호텔의 화장실은 세계 어느 화장실에 비해서도 부끄럽지 않은 훌륭한 것이지만 호텔 이외의 일반적인 중국식 화장실은 문도 없는 초라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들 공공 변소에는 출입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칸막이도 없다. 설사 칸막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칸막이는 허리 정도의 높이일 뿐이어서 쭈그리고 앉으면 옆간에 있는 사람의 가슴위까지 드러나 보인다.

일반 가정에서도 일을 보다가 옆사람과 눈이 마주쳐야 하는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주택용 단독 화장실의 경우 역시 출입문 높이가 허리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밖에서도 누가 있는지를 훤히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크를 할 필요는 없다. 중국의 가옥들 중에도 따로 화장실을 두고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사람들은 가족용 자택변소보다는 마을의 공동 변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아마도 사회주의 국가인 탓에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남녀 변소의 구분은 있다. 매일 아침마다 사람들은 마을 공동변소에서 이웃과 만난다. 이 정다운 이웃사촌들은 서로 만나 집안 일이며 마을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마치 우리 사회의 반상회 같은 분위기가 화장실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중국의 변소는 일반적으로 한가운데에 통로가 있고 한쪽은 소변을 보는 곳, 그 반대쪽은 대변을 보는 곳으로 되어 있다. 소변을 보는 곳에는 별다른 변기를 설치하지 않고 옆으로 길게 홈을 내어 놓았다. 대변을 보는 곳에는 통로보다 한 층 높은 바닥에 변조로 통하는 폭 20센티미터 정도의 장방형 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통로와 직각으로 여러 개 만들어져 있다. 들어가서 몸을 통로 쪽으로 향하게 하고 나란히 쭈그리고 앉는 방식과 한 줄의 홈이 통로와 평행으로 나 있는 방식이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그 구멍의 크기, 구멍의 간격이 좁게 되어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대개 칸막이가 있으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때,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앉는다든지 엉덩이 쪽을 마주하고 앉는다든지 남의 얼굴 앞에 자기 엉덩이를 내밀고 앉아서 안된다. 일을 보고 있는 중에 사람들은 쭈그리고 앉은 채 신문이나 잡지를 읽거나 옆의 사람과 서로 즐거운듯이 이야기를 나누고는 한다.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 화장실은 '부끄럽고 지저분한 행위-배설을 하는 곳'이 아니라 일종의 정보 교환 장소인 것이다.

중국에서 가장 현대적이며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광주 역전의 공중 화장실 역시 개별 칸막이가 앉은키 정도로 낮고 출입 공간도 매우 좁다. 서서 보면 어느 칸에 사람이 들어 있는지를 훤히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이다. 게다가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어서 장화를 신은 청소원이 종일 호스의 물을 이용해 분뇨를 씻어 내린다. 대개의 사람들은 변소에 가는 것조차 남에게 알리기를 부끄러워 한다. 심지어 변소 앞에서 함께 차례를 기다리거나 용변을 마치고 나오는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기조차 부끄러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용변은 누구나 해야만 하는 인간의 필수적인 행위요 결코 비밀스런 것이 아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배설하는 행위를 비밀스럽게도, 수치스럽게도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 농가의 변소는 대개 대문 옆에 흙담으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구덩이를 파서 발을 올려 놓을 수 있게 나무를 걸친 간단한 것으로 분뇨가 다 차면 그 위에 짚이나 낙엽 등을 덮고 퇴비로 만들어 발에 뿌린다. 공중변소의 경우 변소의 바로 밑에 변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변소 바깥쪽에 비스듬히 콘크리트를 치고 변조를 향해 천천히 미끄러지게 해 놓는다. 변조에 분뇨가 차면 수거차가 와서 치우는데, 분뇨 수거원이 주로 여성들로 되어 있다는 점이 이채롭다.